

# C8004 중소형BEST주식FOFS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중소형BEST주식FOFS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중소형BEST주식FOF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2572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5.04.17
운용기간	2020.10.01 ~ 2020.12.31	손속기간	차액으로 별도의 손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 투자 목적은 국내 대표적인 중소형 주식형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수익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중소형BEST주식FOFS	자산 총액 (A)	2,534	2,738	8.04
	부채 총액 (B)	1	1	6.60
	순자산총액 (C=A-B)	2,533	2,737	8.04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273	2,080	-8.50
	기준가격 (E=C/D×1000)	1,114.38	1,315.77	18.07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4분기 KOSPI는 23.44% 상승한 2,873.47pt로 마감했습니다. 스타일별 지수는 대형주 25.24%, 중형주 19.23%, 소형주 12.52%, KOSDAQ 14.18%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국내증시는 분기초 미 대선관련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조정을 받았으나, 미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미국 경기부양책 타결 등의 영향으로 급등했습니다. 영국, 미국, 유럽연합은 각각 지난 12월 8일, 14일,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포함된 21년 예산안에서 서명하면서 미 연방정부 셋다운 및 부양책 타결 지연 관련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전기전자, 전기가공업, 제조업 등 대다수 업종이 상승하였고, 음식료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동 펀드는 지난 분기 동안 18.07% 상승하여 18.28% 상승한 벤치마크 수익률을 0.21%p 하회하였습니다. 섹터별로는 운송, 미디어엔터, 화장품 등의 섹터가 펀드에 부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기계, 자동차및부품, 반도체및부품 등의 섹터가 펀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목별로는 풍력발전, 자동차, 2차전지 등의 중목이 펀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엔터테인먼트, 해운, 제약바이오 등의 중목이 펀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는 언더퍼폼하였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1분기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21년 국내 코스피 영업이익의 증가를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38%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업종의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투자싸이클과 달러약세가 동반되면서 국내 증시의 강력한 펀더멘털 개선이 전망되는 한편,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코스피 12개월 Fwd. PER 13.21배 vs. 최근 5년 평균 10배)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증가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강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글로벌 통화 완화기조에 대한 기대 약화를 동반할 경우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재고 사이클과 실적 기저효과, 추가적 재정부양책 등을 감안시 21년 초까지는 경기민감주의 강세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포트폴리오는 펀더멘탈 회복가능성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과도한 쏠림보다는 업종 확산을 통해 균형을 잡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요회복의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자동차/IT와, 경기회복의 과정에서 마진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소재/운송, 극단적 수요 감소를 경험한 일부 소비재 중심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상대 성과가 부진한 동안 기존 성장주의 추가적인 잠재력 확인을 통해서 비중확대가 가능한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전통산업으로 분류되어 낮은 멀티플을 적용받아온 업종내에서 성장산업 확대를 통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중목군을 선별하여 초과수익 창출에 힘쓸 계획입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중소형BEST주식FOFS	18.07	37.67	74.29	42.67
(비교지수 대비 성과)	(-0.21)	(4.60)	(8.13)	(10.80)
비교지수(벤치마크)	18.28	33.07	66.16	31.87

※ 비교지수(벤치마크): 중형주(T-1) X 35% + KOSDAQ(T-1) X 25% + 대형주(T-1) X 25% + CALL X 10% + 소형주(T-1)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낸 것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중소형BEST주식FOFS	42.67	47.10	26.34	28.00
(비교지수 대비 성과)	(10.80)	(15.36)	(10.41)	(-2.85)
비교지수(벤치마크)	31.87	31.74	15.93	30.85

※ 비교지수(벤치마크): 중형주(T-1) X 35% + KOSDAQ(T-1) X 25% + 대형주(T-1) X 25% + CALL X 10% + 소형주(T-1)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낸 것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0	0	0	295	0	0	0	0	0	0	-3	293
당기	0	0	0	418	0	0	0	0	0	0	-3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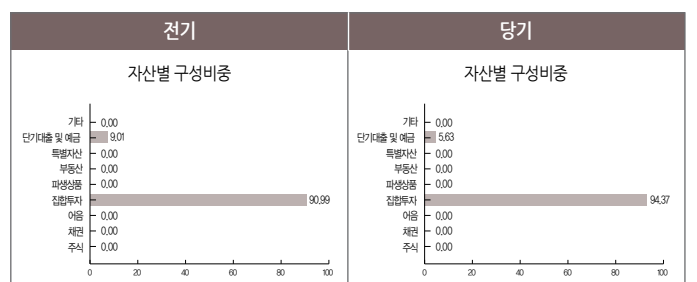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0 (0.00)	0 (0.00)	0 (0.00)	2,584 (94.3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54 (5.63)	0 (0.00)	2,738 (100.00)
합계	0	0	0	2,584	0	0	0	0	0	154	0	2,738

※ (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우리G Best중소형증권자 투자신탁(Class W)	38.52	6		
2	교보위대한중소형별류증권Af	27.97	7		
3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1호(주식) ClassC-W	27.87	8		
4	단기상품 CMA(신한금융투자(CMA))	4.88	9		
5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0.76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우리G Best중소형증권자 투자신탁(Class W)	주식형	759	1,055	대한민국	KRW	38.52
교보위대한중소형별류증권Af	주식형	551	766	대한민국	KRW	27.97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1호 [주식]ClassC-W	주식형	486	763	대한민국	KRW	27.87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CMA	신한금융투자	2020-12-31	134	0.40	2021-01-04	대한민국	KRW
예금	우리은행	2015-04-17	21	0.23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1	78	2,646,562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8	78	2,646,562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7	78	2,646,562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646,562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2	0.11	3	0.1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3	0.12	3	0.12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687	0	0.4687
당기	0.4686	0	0.4686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중소형BEST주식FOFS'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 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 조 제3호 및 제4호)